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GCN방송을 통해 성경의 복음을 접하고 삶이 변화된 시청자 간증과 더불어 만민국제신학교와 세미나를 통한 세계교구화 소식.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1)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 곧 비진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순전하신 주님처럼 ...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순전함'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삶 속에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크리스천이 되자.

변화의 열매, 권능의 열매!

신앙의 핵심을 깨달아 변화의 열매로 나온 문석준 형제와 사진기도로 어머니가 목발 없이 걷게 된 케냐 머쉴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781호 2017년 3월 2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콩고민주공화국 4개 도시에서 만민국제신학교 개강, '십자가의 도' 전해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이며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아래 사진 중앙)가 콩고민주공화국 베사이다 교단 총회장 까부뚜 목사(아래 사진 오른쪽)의 요청으로 고마를 비롯해 동부 4개 도시에서 아프리카 만민국제신학교(MIS)를 개강했다.

베사이다 교단 총회장 까부뚜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에 큰 감동을 받아 2016년 6월, 정명호 목사를 초청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하 561개 교회와 함께 만민의 지·협력교회로 가입한 바 있다.

첫 강의는 2월 18일, 고마 시에서 약 200명의 목회자들이



▲ 강사 정명호 목사와 함께한 총회장 까부뚜 목사(우), 총회장 불리고 목사(좌).

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한 후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진 1). 19일에는 오순절 교단 총회장 불리고 목사가 담임하는 8eme CEPAC-HERMON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다(사진 2, 3). 21일에는 부카부 시에서 300명이, 24일에는 바라카 시에서 15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고마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사진 4, 5).

26일에는 유비라 시 엘사다이교회(담임 알람베 목사)에서 주일 설교와 오후에는 '주의 종 및 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정 목사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한 남성도의 실명된 오른쪽 눈이 보이고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던 어린아이가 보게 되는 등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27일에는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비라 시 만민국제신학교가 개강하였다(사진 6).

이 외에도 아프리카 만민국제신학교는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설교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을 케냐 각 주요 도시와 우간다 2개 도시에서 정명호 목사를 강사로 1년에 서너 차례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목회자들, 세미나 통해 성결의 말씀에 감탄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담임 이재원 목사는 지난 2월 7일과 8일 이틀간 태국 국경에 위치한 메사이교회에서 21개 교회 33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차 미얀마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7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 '십자가의 도'를, 8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창세기 강해'를 강의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에 놀라워하며 이 말씀을 풀이 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두 차례 세미나 열려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담임 노현숙 목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에스토니아에서 목회자와 일꾼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세미나를 인도했다. 1월 20일에는 뉴 라이프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21일에는 크리스천 패밀리 센터에서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린 '2010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후, 신앙서적과 러시아어권 방송을 통해 이 목사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대하면서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고 있는 만민의 지교회와 협력교회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간증_ GCN방송 시청자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GCN방송, 너무 좋습니다!”

조순자 집사 (63세, 미국 플로리다 주)



2014년, 저는 유튜브를 통해 설교 한 편을 듣게 되었는데, 이희선 목사님의 '지옥' 설교였습니다. 말씀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에 감탄하며 이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를 찾아보니 만민중앙교회였지요.

교회 홈페이지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가득했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마음에 기쁨이 임하자 그동안 곤고했던 이유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매니저라고 권세를 부리며 종업원들에게 교만하게 대했던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고 나니 곤고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지요.

현재 저는 시차로 인해 토요일 밤에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를 드리고,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신앙서적, GCN방송에 대해 전합니다.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구역공과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할렐루야!

만일 제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서도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겠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 없었던 많은 것이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영적 의미가 시원하게 풀리고, 말씀에 비추어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하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전하는 성결의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3월 2일, 세계 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2017 NRB 총회 및 박람회' GCN방송 부스를 방문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1)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5)

을 바탕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2.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학교, 세 상에서 배우는 지식 가운데는 진리의 지식과 비진리의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진리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진리의 생각과 비진리의 생각을 잘 분별하지 못함으로 부지중에 비진리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진리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지요.

가령, 어떤 책에는 원수 갚는 일이 당연하며 원수를 갚지 못하면 비겁하고 무능력하다는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느낌을 받은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가치관이 자기 안에 하나의 지식으로 강하게 입력됩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지요.

하지만 이미 비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하기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비진리의 지식을 되살려 내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비진리의 마음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범사에 하나님 뜻을 대적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 명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일에 대한 보응이요 저주로서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끌어오고 아말렉 왕도 사로 잡아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라 하시며 그로 인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선포하셨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한 것은 자기 욕심과 교만 가운데서 나온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보다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영계의 법칙 가운데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생각 속에서 더 지혜롭고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가리어진 사울 왕은 불순종을 하고도 여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했고, 사무엘 선지가 지적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지요. 이후로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계속 불순종해 나가니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3.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임의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동

원해 스스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단에서 표현한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때가 되어 결과를 보면 자신이 주관받은 내용이 얼마나 맞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는 만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영적 훈련이 되지요. 매순간 체험들을 통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음성 이구나.’ 깨달았을 때 명심하여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들을 수 있으며 영적인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찌하든 천국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믿음이 장성하기 원하시며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밝히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 기회를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려 주어도 듣지 못하며 귀로 듣는다 해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둔하므로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오히려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비진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신속히 버리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영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오직 순종하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과연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이며, 왜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1.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두뇌에는 기억 장치인 뇌세포가 있어서 지식을 입력하고 저장했다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에 기억된 것을 다시 떠올리는 작용이 바로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 가운데서 떠올리는 지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비진리 가운데서 떠올리는 지식이므로 비진리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미움, 혐기,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등 많은 죄성이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에 심겨집니다. 이런 악한 마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순전함'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순수하고 완전함'을 뜻하는 순전함은 깨끗한 마음 그릇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상태와 같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마음 안에 풍성히 맺히면 모든 입술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19~20절에 나오는 순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그 마음을 닦아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자신을 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시고 늘 화평을 이루셨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미운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일러 주셨으며, 깨우치지 못할 때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셨다. 성경을 보면 아무 죄없이 참혹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떤 변론이나 항변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다.

다툼은 헐기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못마땅해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불편해하고, 변론하거나 다투다면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매사에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비진리도 용납하지 않고 벗어버린다면 신속히 순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부딪쳐 오는 사람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 줄 수 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뤄 주신다.

◆ 들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이나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도 겸손히 행하셨고,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리셨다(요 17:4). 사도 바울은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만 변함없이 그가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전 15:10).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주의 교양

사람은 걸음걸이나 몸가짐, 말 속에 그 마음과 성품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대체로 빠르고 온유한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걷는 경우가 많다.

걸을 때도 몸을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앉아 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진리의 말은 아니라 해도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깊이 생각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을 손으로 치면서 말하거나 삿대질을 해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음식물을 머금고 말하거나 침을 튀기면서 말하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전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교양으로 대화함으로 선한 향을 발하고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엡 4:29 ; 골 4:6).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는 지극한 선(善)과 겸손함,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와진 것임을 깨달아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사랑과 긍휼

'상한 갈대'란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영원 불멸의 영(靈)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육의 수명이 끝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히 9:27), 아무리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할 수 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심히 죄를 범하고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살전 5:19). 그런데 성령이 불씨처럼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불드시고 무수히 기회를 주신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난 영혼들을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죄인들에게 다가가기로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마 9장 ; 요 4장).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품어 주셨던 것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요 13:1). 우리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 먼저 그 손을 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흑백을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여 상대를 꺾으려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선대함으로써 악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녹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 순전한 마음이다.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죽어 가는 무수한 영혼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중에 거하기를 바란다.

4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7.3.26~4.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창세기 강해 114
- 요한일서 강해 27-32
- 성령의 9가지 열매 1-4
- 요한계시록 강해 32-41
- 믿음을 책망하시니 15-19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3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45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27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6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7 (김수정 목사)
-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정리라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4
- 권능 스페셜 9
- 창조와 과학 6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67
- 내 마음의 찬양 41
- 모두 드러요 57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4
- 뉴욕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44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문석준 형제 (21세, 1청년선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나면서 저희 가족은 낯선 땅에 정착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형 무지개를 보여 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제게 언어의 빠른 습득력을 주셔서 3, 4년 차에는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지요. 4년 후, 아버지가 중국 본사로 발령받아 한국인 비율이 80%되는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생활과 달리 중국에서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게임, 가요, 드라마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세상 것들이 급속히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여름, 10학년(고1) 과정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주일에 당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니엘철야에 참석했는데 기도 중 당회장님 모습이 떠오르면서 왈각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을 취해 절망하던 제게 영혼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목자의 사랑이 진한 감동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뜨겁게 기도 하면서 세상 것들을 끊고 설교 듣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교회에서 떨어져 혼자 중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다시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며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해로 저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작은 사진).

2015년 6월,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 주셨고 믿음의 친구들도 생기니 점차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었지요. 9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때에는 마음의 죄성들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매일 셔츠는 땀에 흠뻑 젖었고, 손은 너무 짝 쥐어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2016년 3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입생이 된 저는 기숙사 내 기도실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소개팅에 나가고 밤새 술을 마시고 노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저는 절대로 주

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말에 교회에 오면 충만해졌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충만함을 잃는 생활이 반복되었지요.

그러다보니 기도도 식어지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 산책하면서 찬양을 들으며 울어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행복해야 하는데 왜 나는 힘들까? 말씀을 듣고 즐거워야 하는데 왜 내게는 짐으로 다가올까?’ 하는 의문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지요.

마침내 해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도 따뜻한 분이요, 진리로 변화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 주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온전해지기까지 재빨리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보듬어 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느껴가며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니 수심이 가득했던 제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저만의 이유를 찾은 뒤에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볼 때도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2016년 10월,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를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진 기도를 받은 뒤 어머니가 목발 없이도 잘 걸으세요!”



머씨 암부이 기체로 성도와 어머니 (37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케냐 나이로비에서 153 km 떨어진 네리 도시에 살고 계신 어머니는 작년 3월에 왼쪽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고관절도 수술받아야 했지만, 수술비가 없어 8개월 동안 진통제만 복용하고 계셨지요. 수술받은 왼쪽 고관절도 통증이 완화된 정도였기에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으며 목발 없이는 걸지도 못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27일,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 이수진 목사님(예성연합 부총회장) 초청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치료받게 해 드리고 싶었지만 몸

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없었고, 차를 대여할 형편도 아니었지요. 저는 믿음으로 어머니 사진 위에 기도를 받았습시다. 그 뒤 어머니의 극심한 통증이 사라졌고, 12월 초 제가 고향에 갔더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어머니가 목발 없이 혼자 걸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니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신 어머니는 요즈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물론 참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7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